

광주시청 여자양궁 '우승 명중'

실업연맹실내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LH 5-1로 꺾고 금메달 기보배·이승윤 혼성전 은메달...박채순 감독 우수 지도자상

광주시청 여자양궁팀이 제22회 한국실업연맹 실내대회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기보배·최민선·김소연·박세은이 팀을 이룬 광주시청은 10일 충남 보은 국민센터에서 열린 이 대회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한국도지주택공사(LH)를 세트 스코어 5-1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청은 16강에서 인천시청을, 8강에서 흥성군청을 각각 5-3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광주시청은 4강전에서 강력한 우승후보 현대백화점을 만나 숨막히는 접전 끝에 결승전에 나섰다. 광주시청은 현대백화점과 세트 스코어 4-4까지 가는 접전을 펼쳐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3명의 선

수들이 단 한발씩 썩 승부를 결정짓는 쏘오프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하지만, 양 팀 선수들은 쏘오프에서도 전원 10점 과녁에 꽂아넣는 명승부를 펼쳤다. 결국 대회 운영진의 판정으로 승부가 갈렸다. 광주시청 마지막 주자 박세은이 쓴 화살이 표적 중앙 핀홀에 더 가까웠다는 판정을 내려 광주시청이 세트스코어 5-4로 현대백화점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시청은 최종전에서 한국도지주택공사(LH)를 세트 스코어 5-1로 가볍게 따돌렸다. 광주대표 기보배와 이승윤(광주시양궁협회)은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혼성전에서 은메달을 일궈냈다. 기보배와 이승윤은 16강을 부진으로 통과한 후 8강, 4강전, 결승까지 순탄하게 올랐다. 하지만, 결승에서 제주에 4-5로 패해 금메달을 놓쳤다. 지난 대회 남자 개인전 우승자 이승윤은 필리피케이션으로 진행된 예선에서 596점을 기록하며 1위로 본선라운드에 진출 견고한 실력을 선보였다. 국가대표에 발탁된 그는 이번 대회에서 내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박채순 광주시청 여자양궁팀 감독은 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박채순 감독은 "올 시즌 마지막 대회 우승은 선수들의 자존감 회복은 물론,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됐다. 내년 시즌 좋은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청 여자양궁팀이 한국실업연맹 실내대회 단체전 우승을 기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연, 박세은, 기보배, 최민선, 박채순 감독. <광주시청 여자양궁팀 제공>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 역시 '전국 최강'

동아일보기 전국대회 3관왕 단체전·개인단식·복식 제패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이 동아일보기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은 지난 8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열린 제98회 동아일보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여고부 단체전, 개인복식, 개인단식을 모두 제패했다. 앞선 3개 대회 단체전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좌절했던 순천여고는 한국 소프트테니스 대회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 컵까지 들어 올렸다. 김윤진·박빛나·김하은(이상 3년), 김가은(2년), 신희선·김여빈·강주현(1년)은 여고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경북 명실상주클럽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결승에서 대전여고를 2-0으로 누르며 올 시즌 첫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도 순천여고는 금빛 스트로크를 날렸다. 김윤진·박빛나(이상 3년)는 여고부 개인복식 결승에서 경북조리과학고 김진아·문혜원 조를 4-0으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열린 개인단식에서는 막내 신희선이 결승에서 명실상주클럽 김효정을 4-3으로 꺾고 금메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 왼쪽부터 신민철 감독, 김하은·김윤진·신희선·강주현·김가은·박빛나·김여빈 선수, 김현순 코치. <전남도체육회 제공>

달을 목에 걸었다. 순천여고는 올 시즌 총 6개의 금메달을 포함해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소프트테니스 여고부 최강팀임을 증명했다. 순천여고 김현순 코치는 "올해 단체전 우승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일궈내 기쁘다"며 "선수들이 훈련을 잘 따라줬고 이성민 교장선생님

을 비롯한 신민철 감독님 등 학교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여고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해남군에서 열리는 2020 전국 남녀 중고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에 출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권순우 "내년엔 메이저 3회전 진출"

한국테니스선수권 출전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당진시청)가 2021 시즌 목표를 메이저 대회 3회전 진출이라고 밝혔다. 권순우는 충남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진행 중인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남자 복식과 혼합복식에 출전했다. 9일 열린 혼합 복식 1회전에서 정영원(NH농협은행)과 한 조로 나선 권순우는 이승훈-윤소희(이상 안동시청) 조를 2-0(6-2 6-3)으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권순우는 "귀국 후 자가 격리를 마치고, 연습만 하는 것보다 대회 출전이 낫다고 생각했다"며 "우

승 목표보다 연습을 잘하자는 마음으로 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경북 구미에서 열린 실업연맹전 남자 복식에도 출전해 준우승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5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한국선수권에 나온 권순우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대회를 뛰지 못했지만 US오픈에서 메이저 첫 승을 따냈다"며 "2월에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 4주 연속 8강에 오른 것과 US오픈 승리는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시즌을 돌아봤다. 그는 "자가 격리 기간에 근육량이 4kg 정도 빠졌다"며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어서 이번 대회에는 복식만 뛰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랭킹 95위인 권순우는 올해 3월 69위가 자신의 최고 순위다. 유다니엘 코치와 새로 2021 시즌을 준비할 예정인 권순우는 "최고 랭킹보다 10단계 정도 올리는 것이 2021 시즌 목표"라며 "메이저 대회 3회전 진출과 올림픽 출전도 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테니스 실력이 중요하지만 영어를 잘하면 자신감도 더 생길 것 같다"며 "심판에게 항의하거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코트 위 인타부도 영어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니스 기술적인 부분보다 상대방의 다양한 플레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게임 플랜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스스로 지적했다. 권순우는 한국선수권 남자 복식에서는 이태우(당진시청)와 같은 조로 출전했다. /연합뉴스

호남대 여자볼링, 올 첫대회서 종합 준우승

협회장배 개인전·2인조 1위 창단 2년만에 다크호스 부상

호남대학교 여자볼링부가 올해 첫 대회인 제34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학생볼링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호남대학교 여자볼링부는 지난 9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린 이 대회 개인전, 2인조에서 1위에 올라 종합 준우승했다. 지승은은 82개팀이 참가한 개인전에서 국민대학교 주혜연(2위), 오아현(3위)을 제치고 평균 229.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유수는·오지민은 38개팀이 참가한 2인조 종목에서 223.3점으로, 계명문화대 김바다·강민경

(2위)조, 경북대 김유미·최영주(3위)조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여자볼링부를 지도하고 있는 정경인 코치는 "코로나19로 컨디션 조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회전 훈련장소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이 실력 발휘에 힘이 됐다"며 "꾸준히 노력해서 실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호남대는 올해 첫 대회인 협회장기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창단 2년 만에 여자대학부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호남대 여자볼링부는 2019년 창단한 이래 전국 남녀종별선수권대회 3인조 3위에 올랐고 전국체육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 여자볼링부 <호남대학교 제공>

신진서, 안성준 꺾고 2년 연속 '바둑왕'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2년 연속으로 '바둑왕'에 올랐다. 신진서는 10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9기 KBS 바둑왕전 결승 3번기 2국에서 안성준 8단에게 256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지난 6일 1국에서도 안성준을 불계로 꺾은 신진서는 종합전적 2-0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신진서는 지난해 12월 제38기 대회에서 신민준

9단을 2승 1패로 제치고 첫 바둑왕전 우승을 차지했다. 신진서는 세계 메이저대회 준우승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국내 타이틀 획득에 성공했다. 신진서는 지난 3일 막을 내린 2020 삼성화재배 결승 3번기에서 '마우스 조작 실수'로 1국에서 패하고, 2국에서도 반등하지 못하며 중국 랭킹 1위 커제 9단에게 우승컵을 내주고 준우승에 그쳤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